

한 국 가 금

<10년간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있는 광경>

협회 태동의 필연성 1960년대

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축산업 특히 양계산업의 발전에 있어 하나의 고비를 이루는 길목이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다.

1960, 1961년도의 우리 나라 전반적인 축산업—특히 양계업의 현황은 전체 닭 수수 1,200만수에 규모는 농가의 부업형태로서 200수 내외의 규모가 대부분이었으며 1,000수정도의 양계장은 전국에서 몇몇 되지 않을 정도였다.

사료업도 대부분이 밀기울을 중심으로하여 자가배합을 하는 정도였으며 완전배합이라는 것보다 밀기울 생선찌꺼기 등을 불에 개어서 급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양계의 경기는 닭 수수가 많지 않으니 만큼 꽤 좋은 편이었다. 실제 1961년도의 월별 난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경기가 좋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부업형태에서 현금순환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양계업자체에서 수익성이 높은 것인지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의 양계인들에게 필요한것은 무엇보다 기술적인 문제들이었다. 가끔 볼 수 있는

월 별	단 가(개당)	월 별	단 가(개당)
1	3.41	7	2.87
2	3.55	8	3.36
3	2.99	9	4.20
4	2.86	10	4.25
5	3.14	11	3.61
6	2.80	12	3.41
		평균	3.37

일본의 양계기술자들을 통하여 엿볼 수 있는 일본 양계의 현황은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고 거기에 나오는 용어들조차도 낯설은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양계인들이 알 수 있는 용어는 T DN(가소화 양분총량) C. P(조단백질) 정도였으며 아미노산이나 생산에너지(P/E)등에 대해서는 전혀 감감한 실정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모든 양계인들은 양계전문지식을 갈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연유에서 한국가금협회의 태동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당시에도 양계인들의 모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이러한 모임들은 순수한 친목단체이거나 아니면 학자들만의 순수한 학술모임이었다.

협 회 — 그 10 年

(前 1962~1967年)

한국가금협회의 10년사를 기록하기 전에 여러분 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이 기록은 협회에 비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문서철 등을 중심으로 당시 협회의 임직원으로 계시던 분들을 보시고 그분들의 기억과 기록을 근간으로 하여 엮어 본 것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과 같이 10년간의 기록을 뒤적여 보니 그 동안의 도난, 화재 등으로 없어진 기록도 많았고 또 구술하시는 분들의 기억에도 희미한 것이 많았다. 단지 이 기록은 불충분한대로 협회의 지난 10년 동안의 활동을 간추려 본 것이라 할 수 있고 누락된 이 있으면 수시로 지적해 주시는 모든 회원들의 협조를 얻어야만 완전한 기록으로서 협회의 사실(史實)이 다시 한번 빛을 볼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한다. ……………<편집자 註>

기 록 : 김 영 옥

협회 창설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연대별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962 년 도

※3월 2일 : 서울 성동구 장안동에서 이기능씨 외 15명이 장안 양계친목회를 조직하여 매월 1회씩 장안국민학교에서 강습회 개최

※3월 4일 : 장안국민학교에서 강습회
오봉국...가금 영양(43명 참석)

※4월 2일 : 장안국민학교에서 강습회
오봉국...가금영양(42명 참석)

※5월 7일 : 장안국민학교에서 강습회
오봉국...사양관리(47명 참석)

※6월 6일 : 장안국민학교에서 강습회
오봉국 : 사양 관리(45명 참석)

※7월 2일 : 장안국민학교에서 강습회
오봉국...사양관리(45명 참석)

※8월 4일 : 장안국민학교에서 강습회
오봉국...사양관리(37명 참석)

※8월 25일 : 서울시 축산협동조합 회의실에서 30명이 참석하여 한국가금협회 창립을 위한 발

기인회를 개최하다.

※9월 3일 : 장안국민학교에서 강습회개최
오봉국...사양 관리(50명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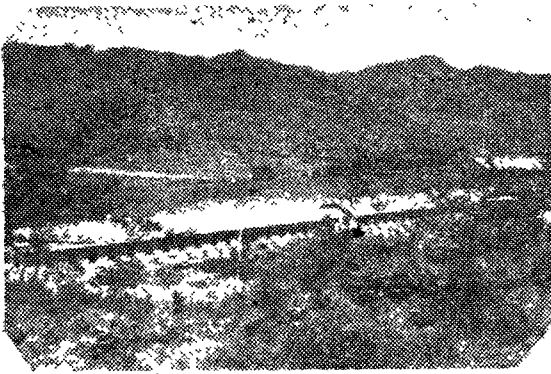
※9월 28일

가칭 한국가금협회 발기인회

서울시 축협 회의실에서 30명이 모여 발기인회를 가졌다. 발기인과 취지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취지문>

가칭 한국가금협회를 발기함에 즈음하여 시하고당의 존재 청안하심을 양축하나이다. 우리 나라 가금업은 혁명정부의 과감한 축산 정책에 따라 축산자금의 방출, 계란군납의 확장과 아울러 가금생산물의 해외시장개척등에 힘을 얻어 근년에 보기드문 발전상을 보이고 있으나 요즘 국내 사료사정의 악화와 생산물의 소비부진 경영기술의 불합리한 점 등으로 앞으로의 가금업 발전에 낙관을 불허하는 현실에 놓여있는 차체에 가금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오늘의 현실에 만족함이 없이 일진 월보하는 새로운 과학적 양계기술을 도입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꾀함으로써 내일



<신축검정사 전경>

의 난관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이러한 전지에서 국내가금 생산업자들의 귀중한 실제적 체험과 실험, 그리고 학자와 연구가들의 새로운 이론과 기술 등을 상호 교환하여 이를 보급하는 동시에 해외의 과학적 기술을 도입 보급시킴으로서 뒤떨어진 우리나라 가금업을 보다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향상시키며 아울러 가금업에 종사하는 인 인간의 용화와 협동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국 가금업을 국외에 선양시킬 목적으로 가금계 여러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총망라하여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가칭 한국가금협회를 발기하는 바오니 가금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갈망하여 마지않습니다.

1972년 9월 28일

가칭 한국가금협회 발기인일동

발기인(무순)

- 강금로(서울), 강인환(충남), 김현배(서울), 김영희(경기), 김구봉(경기), 김영석(서울), 김봉식(충남), 김남형(충남), 김동곤(충남), 박도현(서울), 송경석(강원), 오승근(서울), 오봉국(경기), 오세정(경기), 오재록(강원), 오선균(충북), 이필용(경기), 이기능(서울), 이흥평(경기), 이창열(서울), 이재근(충북), 이승규(경기), 임만근(충남), 윤경중(서울), 유교상(강원), 장용규(경기), 조희복(충남), 최종근(강원), 최충환(충남), 홍종철(강원)

- ※10월 5일 : 장안국민학교에서 강습회 오봉국...닭의 품종개량(49명 참석)
- ※11월 3일 : 서울수의대학에서 강습회 오봉국...닭의 품종개량(58명 참석)
- ※12월 5일 : 서울시 서대문구 정동 소재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회원 120명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초대회장에 윤상원, 부회장 강금로, 김영희, 상무이사에 박도현

이사 : 김현배, 오세정, 오봉국, 김안제, 안태석, 장진호, 김동곤, 윤경중, 김영석, 김구봉, 이재근, 이화방

감사 : 이기능, 이필용 등이 피임.

사무소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92-2에 두기로 하고 월 1회의 강습회와 이사회를 갖기로 결의하다.

※12월 14일 :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한국가금협회 제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이상이 1962년에 가금협회를 태동시키기 위하여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기록일뿐 이 기록이 있기까지 뒤에 숨어서 이 태동을 움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즉 당시 한양 부회장을 경영하던 김현배씨, 이기능씨 등은 어려운 일이 있을때마다 사재를 털어가며 협회의 탄생에 산파역할을 하였다. 참고로 당시 업계의 상황을 알아보면 여러가지 임의의 사회단체들이 있었다. 우선 이창렬씨를 중심으로 하는 서울시 양계동업조합이라는 친목단체와 김원복씨의 한국가금연구소가 있었으나 공공성이 약하였으며 가금연구회라는 학자들만의 모임이 있었으나(이승규, 이재근, 오봉국, 연시중, 이선형, 김상철, 한연동, 김동곤 등 15명) 결국 이러한 군소모임들이 시대적 요청에 의한 가금협회 창립의 필요성에 따라 다같이 참여하였다고도 할수있었다.

기술보급에만 전념 1963·4년대

- ※1963.1월 10일 : 서울 수의대에서 강습회 오봉국-닭의 품종개량(67명 참석)
- *2월 7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

- 오봉국-닭의 품종개량(69명 참석)
- ※3월 7일 : 전국대에서 강습회
- 오봉국-닭의 품종개량
- 김찬선-계란의 오염방지법
- ※4월 4일 전국대에서 강습회와 아울러 보새가공사료(현재의 배합사료)의 품명전시회와 서울약품의 제품전시회가 있었다.
- 조병울-닭의 질병 예방
- ※5월 2일 전국대에서 강습회
- 조병울-닭의 질병예방(59명 참석)
- ※6월 6일 전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 오세정-양계 경영학
- 김영석-실제 양계 경험담
- 농림부축-사료의 현황설명
- ※7월 7일 전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 오봉국-가금 영양학(65명 참석)
- ※8월 8일 : 전국대에서 강습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지방의 양계인들에게 기술 보급을 하고자 전국 순회양계강습회를 가졌다.
- 서울 : 조병울-닭의 해부방법 실습(61명)
- 전국 순회 강습회 : 서울, 대구, 광천, 강습회 개최
- 8월 8일 : (서울) 조병울-백혈병이란?
이용빈-새로운 양돈법
- 8월 9일 : (서울) 오봉국-국내 가금 육종의 현재와 장래
유윤수-사료의 현황 (당시 축산국장)
- 오세정-우리나라 양계의 산업화를 위한 방안
- 8월 10일(광천) : 오봉국-새로운 양계 경영법
조병울-가금 병리학
- 8월 23일 : (대구) 오봉국-조병울 강습회
- 9월 8일 : 전국대에서 강습회
- 오봉국-가금 영양학
- 이창렬-한일 농림기술교류 협회 참석보고
- ※<10월중의 기록 분실>
- ※11월 3일 전국대에서 강습회개최
- 정운의-영양과 질병예방법



<하계양계 강습회 광경>

- 김정현-계분처리에 대한 제언
- ※12월 14일 : 서울 서대문구 정동소재 우유협동조합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다.
- ※1964년 1월 5일 : 전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 오봉국-가금 영양학
- ※2월 2일 : 전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 오봉국-가금 영양학
- ※3월 8일 : 전국대에서 춘계 특강을 실시
- 최창해 : 양계의 기술적인 제문제
- ※4월 12일 : 전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 오세정 : 사료의 선택방법
- 5월*10일 : 전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 반성환 : 양계의 경영법
- ※<6월중 기록분실>
- ※7월 5일 : 전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 김동곤-양계의 선발 방법
- ※8월 2일 : 전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 김동곤-양계의 선발 방법
- ※9월 9일 : 전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 김동곤-사료의 선발방법
- ※10월 4일 : 고려대에서 강습회 개최
- 오세정-닭의 능력검정방법
- ※11월 1일 : 고려대에서 강습회 개최
- 오세정 : 닭의 능력검정방법
- 11월 12일 : 농림부로부터 9월 1일에 신청한 사단법인 한국가금협회의 설립허가를 득하였으므로(농축정 1161.12-1892 당시 장관 차균희) 3

*** 특 집 ***

주이내에 민법규정에 의한 법인 설립 등기를 필하고 등기부 등본 등을 첨부 보고하라는 공문지시.

※12월 3일 : 사무소를 서울시 동대문구용두동 144-61로 이전하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필하였음

※12월 6일 : 건국대 낙원동 교사에서 회원 131명중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회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임원개편으로 2대 회장에 이재근씨 취임.

협회의 명칭을 한국가금협회라고 칭하고 윤상원씨와 이정희(당시 부회장)씨를 고문으로 추대하다.

임원진 : 회장 이재근, 부회장 : 김원복
이사 : 김정현, 송경석, 계병현, 장돈식, 박도현, 강금로, 오봉국, 김동곤, 이창렬, 김영석, 김영희
감사 : 오세정, 이필용

※12월 6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개최
오봉국—우리나라 양계업의 진로
※1964년도의 수지관계
수입 : 36,700원 지출 : 33,100원
잔액 : 3,600원

이상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1963, 1964년도는 기술강습회에 주력하면서 협회의 정식단체 승인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던 해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시 정관및 출원수속은 1963년도에 1차 농림부에 허가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어 이에 대한 설립작업을 김현배, 박도현, 김영희, 이재근, 오봉국, 차두홍, 강호년씨 등이 수차례의 회합을 갖고 서울에서 여관을 정하고 같이 합숙을 해가면서 설립작업을 하였으며 이 때의 경비는 박도현씨의 도움이 컸었다고 한다.

또 한 월례 강습회가 끝나면 곧 그 좌석에서 이사회를 갖었으며 모든 경비는 각자의 호주머니를 털어 상부 상조하였다.

발전일로의 1965·6년

※1965년 1월 5일 : 육추일지 초판발행 저자 : 오봉국 4×6판 63면 광명인쇄소에서 인쇄 10,000부 발행.

※1월 10일 :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위원회산란계 경제능력검정위원회, 방역대책위원회, 생산물 유통개선위원회 사료대책위원회등)

※1월 10일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최창해 : 외국 채란계의 경제성(57명 참석)
농림부 축정과장 : 미국양계시찰담

※계분알선사업 제안
※2월 6일 : 제2대 임원 등기 완료
회장 : 이재근, 부회장 : 김원복, 이창렬
사무이사 : 박도현

이사 : 강금로, 김동곤, 김영희, 김영석, 김경현, 계병현, 송경석, 오봉국, 장돈식
감사 : 오세정, 이필용 직원 : 임병규

※2월 7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오봉국 : 가금의 영양과 사양
농림부 이형준 : 일본 양계 시찰담(69명 참석)

※3월 7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개최
이승규 : 부화와 육추(67명 참석)

※4월 1일 : 산란계 경제 능력검정을 위한 예비검정 착수(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끈지암리 광주 종축장에서 7개군 350수에 대한 예비검정)

※4월 4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전운성 : 닭의 질병과 예방
미국 "하이라인"사의 후리스 캐롭씨특강(65명 참석)

※5월 2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신상주 : 불란서의 양계현황(55명 참석)

※6월 6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오세정 : 가금의 영양생리(54명 참석)

※7월 4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오세정 : 가금의 영양생리(53명 참석)

※8월 1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오세정 : 가금의 영양생리(56명 참석)

※9월, 10월, 11월, 기록 분실
※12월 12일 : 제5회 정기총회를 개최
※결의사항 : 66년도부터 하기강습회 개최결의 간행물을 발간할 것

닭 능력 검정사를 신축하기로 결의하고 자금은 찬조를 받아서 하기로 결정.

이상이 65년의 사업내용이라고 하겠으나 분실된 기록이 많았다. 당시 위촉한 전문위원의 명

단은 아래와 같다.

① 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김 현배

위 원: 오세정, 이기능, 이병갑

② 종계 능력검정위원회

위원장: 김동곤

전문위원: 이재근, 이승규, 오세정, 오봉국, 최창해, 이남표, 이선형, 김기형

위원: 강금로, 김영석, 김원복, 박도현, 이필용, 이정희, 유황

③ 생산물 유통개선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위원: 김영화, 이상옥, 장진학, 주 예한, 한종석

④ 사료대책 위원회

위원장: 김원복

위원: 장돈식, 이필용, 하응환

⑤ 방역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위원: 이창희, 서영덕, 승병선

또 한 시기를 잘 알 수 없었던 것으로 협회의 제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계분알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총 9,150가마의 계분알선을 하여 협회자금에 도움이 되었으며 기타 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사료대책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극심한 사료난을 극복하고 닥아오는 춘기 육추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계용 사료도입에 관하여 당국요소에 수차 건의한바 실효를 거두었음.

또 한 방역대책위원회에서는 뉴캐슬 예방등 국내 제조공급이 적기에 적량을 공급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국내 양계업자들의 피해가 막대하였음에 비추어 방역대책위원회에서 관계 요소에 건의하여 실효를 거두었음.

※해의 학술지 알선 사업

협회 회원에게 매월 25권씩 계 175권의 일본의 「계의 연구」지를 알선하였으며 「축산의 연구」지도 월 13권씩 91권을 알선하였음.

※협회 오봉국이사의 호주행을 위한 환송회

※부산 축협 주최 축산강습회에 이재근회장이 출강하였음.

1965년의 총예산 수입 1,960,000원, 지출 1,9

90,000원

* 1966년 *

※1월 9일: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이필용: 육추관리 (45명 참석)

※2월 6일: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육추일지 10,000부 발행

김원복: 변모하는 종계와 사료 (63명 참석)

※3월 6일: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한종석: 양계의 합리적인 경영

※3월 1일: 닭의 경제능력 검정소 설치 (시내 상복구 공능동 511, 512, 513, 515번지내의 밭 179평을 회원들의 찬조금 701,300원으로 매입하고 5월 13일 등기완료)

※3월 9일: 제1회 검정계 위탁 부화 (축산 협회 협장)

※4월 1일, 제1회 검정계를 이문부회장의 육추실을 빌려 육추 (9군 450수)

※4월 10일: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김동곤—도입된 외국계의 번식에 대한 문제점 (68명 참석)

※5월 1일: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김형철: 계분에 의하 메탄가스 생산이용법 (60명 참석)

※6월 5일: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이창구: 가금전염병 (65명 참석)

※6월 25일: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검정사시설비 보조금 2,040,000원으로 검정소 대지에 육추사 30평, 검정사 65평, 관리사 7평, 도합 102평의 공사 착공

※7월 3일: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이창구: 백리병 (53명 참석)

※7월 18일: 농림부장관(박동묘)으로부터 우수법인체로 지정되어 표창및 패를 수여받았음. (농정 제197회)

※7월 16일: 종계 수입 추천업무

농축산 제1152호에 의하여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종계수입추천을 위임받아 종계수입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쳐 9,600수를 추천 (킴버 셰이버 등)

※8월 7일: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 특 집 ***

이창구 : 계두

※9월 4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이창구 : 닭의 기생충

※10월 2일 : 국대에서 강습회개최

박영일 : 미국의 종계개량방향

※11월 6일 : 서울대에서 강습회 개최

황철성 : 호주의 축산

상진근 : 성장인자와 생체내 단백질 합성의 상관성 (79명 참석)

※12월 7일 : 정기총회 임원개편으로 이재근회장이 유임

회장 : 이재근 부회장 : 김원복, 김영희

이사 : 오봉국, 김정현, 김영석, 장돈식, 김현, 박영수, 오세정, 최상진, 오해영, 주예한, 이필용, 최창해 감사 : 이선형, 박도현

1966년에는 협회가 사업을 대폭 확장 하면서 기술강습회회사업에도 발전을 할수 있었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노력이 많이 들었다. 우선 임의 단결된 힘과 전 회원들의 끝없는 성원이며 특히 당시 축산국장 김영하씨는 가금협회의 발전상과 그 진실함을 누누히 칭찬하면서 검정사업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국고보조를 지원하는데 일대 영단을 내려야 했으며 종계 수입추천관계도 오히려 협회에서 지도적 입장을 취하여 이끌어 나갈 수가 있었다.

1966년도의 결산 : 세입—6, 873, 432원

세출 : 6, 873, 422원

발전의 해—1967·8년

이재근회장의 유임으로 확장 일로에 있던 가금협회는 1967, 1968년에 이르러 더욱 발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1967년 1월 14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개최

농림부, 서울시—1967년의 축산 시책

이재근—동남아 시찰 귀국보고(87명 참석)

※1월 20일 : 서울지주 부로일러 생산업자일동이 단합하여 부로일러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최상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부로일러 가격을 생산

자가 결정하였다.

※1월중 : 육추일지는 판을 거듭함에 따라 그 수요가 격증하여 춘계에 5,000부를 발행하였으나 부족하여 다시 10,000부를 증보 발행

※1월 14일 : 제3회 종계 수입 추천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장 : 이재근

위원 : 이승규, 오세정, 이필용, 김영희

한국제이버협회 : 캐나다 10660수

가나안 양계(주) : 미국 4400수

농협 중앙회 : 일본 4600수 심의가결

※2월 4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개최

민덕기 : 사료의 선별과 배합

임병규 : 육추관리(57명 참석)

※2월 2일 : 대통령및 농림부장관이 양계용 육수수 가격의 상승에 따라 육수수 도입이나 가격조절에 대한 건의

※2월 2일 : 제 1회 닭 경제능력 검정계 300일간 성적 검토

※2월 25일 : 제 2회 검정사업의 육추 방법 및 출품범위를 검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인.

(당시 검정소장 : 노영한)

※3월 4일 : 건국대에서 강습회 개최

이창구 : 첨가제의 사용목적과 닭의 생리적인 문제

제약회사 : 첨가제에 대한 소개(86명 참석)

3월 9일 : 제2회 검정계 위탁부화(평택 제일부화장 : 16군 3200란)

※4월 1일 : 서울 축협에서 강습회 개최 배합사료공장 : 배합사료에 대한 세미나(71명 참석)

※4월 1일 : 제2회 검정계 16군 800수 검정개시

※4월 15일 : 농림부사료과의 위촉으로 배합사료의 적정가격 산출보고

※5월 6일 : 서울 축협에서 강습회 개최

한인규 : 가금영양및 사양, (82명 참석)

※6월 3일 : 안양축축장에서 강습회 개최

이재근 : 닭의 인공수정(91명 참석)

7월 1일 : 양계인들의 기술향상과 신속한 기술교환을 위하여 양계 기술 회보를 창간 (1,000부 4×6배판 4page)

※7월 1일 : 서울축협에서 강습회 개최
 이승규 : 양계경영 분석
 농림부 사료계장 : 사료수급과 전망 (77명 참석)
 ※7월 5일 : 농림부 보조금 1,155,000원과 서울시 보조 693,000원 자체 부담금 602,000원 계 2,450,000원으로 검정사 100명 부화실 17평을 완공
 8월 5일 : 서울축협에서 강습회 개최
 이창구 : 뉴젯슬빙
 정진국 : 부로일러 사양관리 (62명 참석)
 「하계 순회강습회 개최」
 8월 21일 : 광주농립교육원 (200명 참석)
 8월 23일 : 대전시청회의실 (210 // //)
 8월 24일 : 대구 상고 강당 (540 // //)
 8월 26일 : 부산 동아대학 강당 : (120명 참석)
 ※8월 15일 제1회 산란계 경제능력 500일간 검정완료(서울 공능동 검정사에서)
 ※9월 2일 : 서울축협에서 강습회 개최
 신상주 : 사료의 품질문제 (66명 참석)

※9월 2일 : 제1회 검정성적을 검토
 ※9월 22일 : 각 도 축산전문지도사 11명 검정소 견학
 ※9월 25일 : 고대 축산과생 검정소 견학
 ※9월 22일 : 제1회 경제능력 검정성적을 농림부장관에 보고
 10월 7일 : 서울축협에서 강습회 개최
 한인규 : 가금사양(단백질) (70명 참석)
 ※10월 5일 : 육추일지 증보판 발행
 ※10월 16일 : 양계기술 1,000부(제2회)를 발행
 ※11월 4일 : 서울축협에서 강습회 개최
 한인규 : 가금사양(에너지와 단백질)
 김영석 · 이정희 : 닭의 해체법 (60명 참석)
 ※11월 8일 : 서울농업대생 검정소 견학
 ※11월 15일 : 각 시군 축정계장 6명 검정소 견학
 ※12월 : <기록분실>
 (다음호에 계속)

◇ 양계인의 영원한 친구 ◇

월 간 양 계

월 간 양 계 합 본

육 추 일 지

* 1년분 구독료 : 1,500원

반년분 // : 800원

* 창간호부터 6개월분씩 합본

각권당 2,000원

* 권당 30원 송료 10원 동봉

신청하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상기 금액에 해당하는 소액환을 가금협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 드립니다.

한 국 가 금 협 회

서울 특별시 중구 초동 18-11

전화 26-0321, 4692